

**권남희 박사**

**직함:** 교수

**소속 기관:** 간사이대학

**국가:** 일본

**이메일:** kwon@kansai-u.ac.jp

**웹사이트:** [https://kugakujo.kansai-u.ac.jp/html/100000426\\_en.html#contents](https://kugakujo.kansai-u.ac.jp/html/100000426_en.html#contents)

[https://jglobal.jst.go.jp/en/detail/?JGLOBAL\\_ID=201001071135188178](https://jglobal.jst.go.jp/en/detail/?JGLOBAL_ID=201001071135188178)

**수상 연도:** 2026

### ***양자주의를 넘어: 동아시아 어업 관리의 재고***

동북아시아 해역에서는 수십 년간의 남획, 불법·비 보고·비규제(IUU) 어업이 지속가능성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또한 해양 경계의 불확실성은 국가 간 협력과 집행을 어렵게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저해이러한 문제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이 지역의 해양 자원 관리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 간 양자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자협정 중심의 관리체제는 불충분한 데이터 공유, 제한된 집행 수단, 그리고 할당량 설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어업 관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권남희 교수는 공유 어족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기존 협정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적·법적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권 교수는 한국, 일본, 중국 간의 협정에 초점을 맞추어 각 협정의 법적 구조,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에 따른 의무 그리고 각국의 국내 제도 내에서 이러한 협정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권 교수는 또한 이러한 틀에 따라 설립된 공동 어업 관리 기구를 평가하고, 거버넌스 관행을 비교하며 그 효과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권 교수는 중국, 일본, 한국의 연구진과 협력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비공식적인 데이터 공유 체계, 현행 협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집행상의 공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권 교수의 연구는 양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대안을

제시하고, 적응적이며 투명한 생태기반 해양 자원 관리를 촉진하는 정책 권고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권 박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약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